

익산시 ICT 활용 축사 환경개선 나섰다

왕궁면·상지원 등 3곳 시범사업
스마트폰 원격제어 기술 이용
자동 온도도 관리·환기 시스템 지원



익산시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에 나선다. 내부의 온도도 관리와 환기 기능을 갖춰 생산성을 높인 돈사.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ICT를 활용한 '돈사 환경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돼지 밀집 사육지역인 왕궁면·상지원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동 온도도 관리를 위한 ICT 기기와 환기·냉풍시스템이 지원된다. 해당 농가는 돈사 환경 원격제어 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환경정보를 확인·제어할 수 있다. 또 ICT 컨트롤러를 통한 자동 온도도 조절로 혹서기와 환절기에 적정 사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겨울철 내부 온도차로 환기 시안 개 현상이 발생되고 습도가 높아져 폐사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번 시스템은 실외의 찬 공기를 열교환기 내에서 배기열로 데워 입기시키는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이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도 충분한 환기가 가능해 돈사 내 가스를 감소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 내부 폐열을 활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이며 기존 환기시설보다 돈사 온도를 올릴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계절 돈사 내부의 온도도 관리와 환기 기능이 가능해져 돼지 폐사

율 50% 감소와 출하일을 약 5일 단축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돈사 내 적정 온도도가 유지 관리돼 농가의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축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스마트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건립

새만금산단에 199억원 투입



군산시는 스마트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사진)를 건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추진해 새만금산단단지 2공구에 부지 면적 1만7000㎡, 건축 연면적 2081㎡ 규모로 지어졌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해 이달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시험연구센터 조성으로 새만금에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와 건설기계 차세대 기술개발, 기업애로기술지원,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해 건설기계 미래 선도

기술 연구와 중소·중견기업에 체계적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시험연구센터를 새만금산단단지나 나포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내 마련해 건설기계산업 시험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미스춘향 입상자 6명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진 김민설씨·선 김민지씨 등

(22·경기·가천대)씨 등이다. 이들은 제91회 춘향제의 하나로 전남 열린 전국 춘향선발대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미인으로 뽑혔으며 앞으로 3년간 남원의 관광, 축제, 문화, 농·특산품 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완후 남원시장은 위촉식에서 "우리의 민족문화인 춘향의 얼을 항상 기억하며 남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춘향 진에 선정된 김민설(22·서울·서울예술대)씨 등 입상자 6명이 20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 남원 홍보대사가 된 입상자들은 김씨와 미스춘향 선 김민지(22·부산·오랜랜드), 미 이시라(24·서울·성신여대), 정 이한나(24·서울·성신여대), 숙 윤진주(24·경기·수원과학대), 현 김은지

고창군 곤충 치유 프로그램 효과 만점



곤충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배추흰나비를 관찰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정서 향상·우울감 감소 큰 도움
고창군이 곤충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우울감이 커지는 군민을 대상으로 곤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곤충 치유 프로그램은 무장애 시설을 갖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우울증 감소 및 무기력증 개선 등 만족도가 높았다고 고창군은 소개했다. 고창군은 오는 6월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지역 곤충 전문가 등과 협력해 곤충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나비야 함께 날자', '배추흰나비 살이' 등이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장수풍뎅이, 쌍별귀뚜라미, 호랑나비 등을 이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정서가 23.9% 향상됐고, 홀로 어르신들의 우울감도 81.4%가 감소했다. 고창 지역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주변에 있는 곤충을 이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곤충의 활용을 통해 우리 고창군민만의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24일 예술회관에서
정향누리 정읍 단풍아카데미

정읍시는 오는 24일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사람으로 풀어보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제94회 정향누리 정읍 단풍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문학과 기계공학 등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며 4차산업혁명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재봉(성균관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최 교수는 격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인류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 개인과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유의 통찰력과 입담으로 강연한다. 특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전 예약을 통한 선착순 150명만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정읍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정읍시청 총무과(063-539-516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보다 넓은 시야와 삶의 지혜를 키워갈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강좌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단풍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순창군, 취약계층 수납정리 환경개선 사업

5가구 선정 전문가 방문 실습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대상자의 주도적인 참여로 정리정돈을 실천하고 위생에 대한 개념 정립을 돕는다. 군은 사례관리 가정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수납정리 방법 및 실습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짐과 공간을 재배치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유지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수납정리 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대상가구들이 정리를 습관화하고 공간별 활용능력을 키워 깨끗한 내 집 만들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은 7월까지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수납정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수납정리가 필요한 5가구를 선정해 수납정리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리 방법에 대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가구당 총 2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한 수납정리 전문가는 개선공간이 시급한 부분부터 용도별, 사용자별, 계절별, 종류별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